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34·끝〉 광주의 과제와 방향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인권도시를 향한 힘찬 걸음을 걷고 있다. 인권지표가 개발되고, 인권도시 광주헌장이 제정되는 등 인권도시를 향한 기틀이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개최되는 등 세계적 인권도시로의 발돋움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과 도시 간 네트워크 부족, 시민 사회와의 소통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외 인권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광주인권도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식.

정체성 개발·인프라 확대·전문가 양성 3박자 갖춰야



광주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008년 열린 아시아 청소년 인권 평화 포럼 및 광주선언 행사 모습.



지난 6월 21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제47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이 '광주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있다.

정의의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인권정책 수립 인권헌장 실천... 교육·협력사업 꾸준히 추진 인권담당관실 독립화·인권전문 공무원 양성도

◇광주 인권도시만의 특성 갖춰야=각각의 모든 인권도시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도시만의 고유한 방식과 정체성을 개발해야 한다.

유럽의 대표적 인권도시인 오스트리아 그라츠와 독일 뉘른베르크는 '인권 탄압'이라는 아픈 과거 역사에서 시작했다. 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시작된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 등 과거사 반성 등에서 시작돼 지금의 세계적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두 도시 모두 소수 일부 계층에 대한 인권정책이 아닌 보편적 인권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긴 하지만, 각 도시만의 또 다른 '인권 색깔'이 있다.

독일 뉘른베르크의 주요 인권 정책은 독일 최대의 이민자 도시인 만큼 인종 간 반 차별을 통한 인권구현이 우선이고, 오스트리아 그라츠는 동유럽에서 이동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반 차별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 인종·민족 탄압이라는 비극의 과거사를 교훈 삼아 이민자·난민 등에 대한 최우선 인권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도시는 새로운 주변 환경변화

에 따른 인권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매년 새로운 인권 현안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그라츠 경우 '난민 구결'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이 두 도시와 달리 '정의와 화합'을 바탕으로 인권도시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군부독재에 맞서 의연하게 펼쳐 일어난 시민항쟁인 5·18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인권이 광주의 색깔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광주가 세계적인 인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과 관련한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가 확대되어야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이에 따른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광주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등에 대한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광주시는 책자와 해설서, 만화 등을 이용해 광주인권헌장 실천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권단체 협력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생색내기'식의 정책 실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중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단체협력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일부 인권단체가 중복 선정되고, 적절치 않은 사업이 선정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동도 우선시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인권평의회 의장인 볼프강 베네텡 교수는 "인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하며, 모든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반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전문기관 등 양성해야=오스트리아 그라츠의 경우 시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인권평의회가 사실상 인권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유럽 전역에서 인권교육과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 인권과 민주주의 훈련연구센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독일 뉘른베르크의 경우에도 시 산하에 인권담당관실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두 도시의 인권정책의 특징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 시장이 바뀌더라도 인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책 모두가 일관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 경우 인권담당관실이 있긴 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지적'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인권정책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역 인권단체 등이 포함된 평의회 구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 공무원 중에 인권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인권관련 담당 부서도 매년 열리는 세계인권포럼 등 인권 관련 행사를 모두 외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서포트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 인권도시에 걸맞게 공무원 중 일부를 인권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경원기자 cki@kwangju.co.kr

철저한 독일 인의 장인 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95%적중
경매 일반투자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산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팍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성,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주정양)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794만
-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개
- ▶ 토지면적 : 330.58㎡ (100p)
- ▶ 건축면적 : 737.19㎡ (223p)
- ▶ 매매가 6억 9천(용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수익 3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연수익률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 ▶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방 원룸근
- ▶ 토지 89P 건물 233P
- ▶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원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 ▶ 매매가 4억9천 용자 2억3천 5백 실수익 2억5천5백

문의 : 011-684-3886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지 : 5,048㎡
연건평 : 2,474㎡
객실 : 32개
현성업종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상과 영일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